

라고 믿었던 Emory대학에서 수개월동안 우리는 11 환자들에게 실행했다.

Cerebral palsy (뇌성마비)

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EMG feedback은 적용되지 않아오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조정된 연구가 없다. 산발적인 일반적 reports, 한정된 확인과 함께 나타나왔다. 그 가장 좋은 업적은 다음 서술과 같이 position monitors와 함께 있어왔다. 힘, 자세, 그리고 관절 - angle monitors, 몇개의 전자기구들은 몸의 자세와 운동에 대해서(보통 음향적으로) 그 feedback 정보로 설명되어져 왔다. C.P환자에 있어서는 머리위치 monitor와 발의 위치와, pressure switches가 실험을 받고 있다. 그전의 기구들은 보통 시자를 발산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머리위치를 갖게 하기 위해 착용기를 촉진하는 소리를 변경하는 그안에 level-detecting system이 갖추어진, helmet을 사용한다. 발압력 스위치는 대칭적 중량 연결을 촉진하는 signals을 공급하는(신발한쪽이나 양쪽에) 구두중창으로서 설치되어 있다. 그결과는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느려왔다. 여러 관절에 운동의 electrogoniometric monitoring이 점진적인 적용을 수용하고 있다. 새로

운것은 임상사들의 기록결과 보다도 electrogoniometer의 다양한 형태의 환자의 monitoring 출력이다. 그때 환자들이 그 기구의 반응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 조절된 연구 studies가 아직도 report되지 않아오고 있지만 feedback에 대한 mode는 침부된 동기와 지도를 neural, musculotendinous와 articular 한계를 갖는 환자에게 제공되어 질 수 있다.

Conclusions (결론)

재활의학에 있어서의 임상적 EMG biofeedback은 지금 upper motor neuron lesions의 치료에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얻어오고 있다. 특히 stroke 환자에 있어서의 경련성근육의 이완을 enducing하고 근육을 재훈련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얻고있다. C.P와 musculoskeletal 장애에 있어서 침부된 feedback transducers, (electrogoniometers, pressure-sensitive, position-sensiny devices)가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다. 경련성사경은 EMG feedback을 포함한 실험적 치료방법에 특히 적합하다고 증명하고 있다.

병원 탐방

순천향병원 물리치료실

4월의 봄내음을 마음껏 음미하며 순천향병원을 방문한 것은 4월 15일 점심시간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순천향 병원은 서울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는 한남대교를 옆으로 한강변에 우뚝 솟아있다. 취재의 촉박한 시간에 쫓겨 한동안 두리번거리다 뒷쪽에 위치한 별관을 찾으니 물리치료실이라는 예쁜 푼말이 보였다.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 분 선생님 모두가 다정하게 맞이주었다. 순간 생각하고는 달리 깨끗한 의모에 두툼한 안경을 쓰신 이주순 실장님께 인사를 하고 자리를 같이 했다.

순천향 병원 물리치료실은 유능하신 이 실장님의 활동으로 O-S, N-S와 신뢰있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특히 87년 3월 1일자로 재활의학과를 신설 대규모 system로 발전하고 있다. 일일 평균 120명의 환자가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데 Back pain, Fracture 환자가 주를 이루고 그밖에 많은 case 환자를 치료한다고 한다. 바쁜일과 중에도 웃



음을 잃지 않는다는 세 분 선생님들은 아픈이의 약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공부하며 임상에 선다고 한다. 74 년도부터 근무하시는 이주순 실장님은 그동안 많은 후배를 Training시켜 각 병원으로 배출하셨단다.

앞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



기 조성을 위해 닦아온 기본자질을 바탕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신다.

차분하고 정이 풍부해 환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라는 이경정 선생님은 물리치료의 의료수가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신다. 박미경 선생님은 아주 복스럽고 상냥한 인상이 말며느리감으로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짧은 시간동안 취재에 임하다보니 작은 부분 단면만 보는것 같아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느낀 물리치료실의 분위기와 치료 system에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는 기대감은 떨쳐버릴수 없었다.

순천향 병원 물리치료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취재 : 유 길 환
(중부지부 협보기자)

<수필>

내가 좋아하는 모든것들

성 빈센트병원 trainer 하 은 현

나는 우선 마음 내킬 때 하이얀 스케치북에 손가는 대로 붓가는대로 자유로이 움직이며 그림 그리는 조용한 생활을 사랑한다. 손바닥이 고깃고 할 것 없이 화학약품 냄새가 풍기는 물감의 냄새를 좋아한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모든 사물들이 싱싱한 듯이 보인다. 나는 나의 그림을 감상하며 깊이 사색하는 자유롭고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싶다.

나는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여진 무지개떡을 좋아한다. 잔칫날 빼놓을 수 없는 하얀더 하얀 백설기를 무척 좋아 한다. 나는 인절미에 쓰이는 끈고 부드러운 콩고물을 손끝으로 만지기를 좋아한다.

나는 저녁마다 화초에 물을 주기를 좋아한다. 균자, 난초, 수선화, 아지수 등 여러 가지 것들에 진딧물약을 쳐 주기도 하며 때론 새로운 탄생의 기쁨도 맛볼수 있어서 더욱 좋아한다. 겨울이 가고 봄이되면 어김없이 피는 모든 꽃들을 바라볼 때 무척 신기롭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나는 웃는 얼굴을 좋아한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얼굴도 좋아한다. 너그러운 얼굴 특히 깊게 주름이 잡히는 우리 할머니의 웃는 얼굴도 무척 좋아한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재롱을 부리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밥을 달라고 짹짹거리는 모습, 장난

을 치자고 내 발등에 기대 비벼대는 모습..., 이것처럼 사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그리고 잠잘 때 이불에 파고들어 앙증스럽게 웅크리고 지는 것, 또는코를 고는 것조차 또는 내 헤드폰을 망가뜨렸을 때 연필을 물고 도망가는 행동조차도 좋아한다.

나는 전축에서 들려오는 섹스폰 연주 소리를 좋아한다. 그 중 "테니 보이" 를 들을 때면 내 마음속의 잔 찌꺼기가 물줄기를 타고 쓸려 내려가듯 썩하고 소리를 내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엄마가 내려놓는 커피잔이 달그락 거리는 소리 또한 좋아한다. 나는 형광등 불빛보다 스탠드의 불빛을 좋아한다. 초록색 파란색으로 썩여진 전등 갓 밖으로 흘러나온 불빛을 보면 어느덧 내 눈은 스크트 감기고 예전엔 몰랐던 따스히 느껴지는 스탠드로부터 나오는 열기를 받으며 오늘을 반성하길 좋아한다.

나는 한떨기 노란 수선화이고싶다. 복잡하고 삭막한 이곳을 떠나 한적한 언덕진 곳에 사철나무 소나무와 더불어 살고 싶다. 아침에 고개들면 내 머리에 열굴에 이슬 방울이 나를 청결히 해주고 나의 땀과 도란 도란 이야기하며 모든 이들과로부터 사랑 받으며 살고 싶다.

아! 그리고 첫눈이 내리면 스케치북을 들고 한적한 곳에서 나의 조그만 그림의 세계에 빠져보려 한다.